



### 김호신의 피렌체 여행기 영원한 봄을 찾아서

#### 44. Last Night in Florence

하얀 멧돼지 선술집을 나온 우리는 골목길을 따라 숙소를 향해 걸어갔다. 가끔 쌀랑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곤 했지만 부드러운 공기가 가득한 봄 저녁이었다. 내일이면 피렌체를 떠난다. 마지막으로 폰테 베키오를 건너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을 한 번만 더 보고 가기로 했다.

가는 길에 나오는 와인 가게에 들어가 보았다. 숙소를 드나들 때마다 지나쳤는데 피렌체를 떠나기 전에 이탈리아 와인을 한 병 사기로 했다. 사방 벽에 와인이 꽂 들어차 있는 꽤 큰 와인 가게였다. 손님은 아무도 없고 직원인 듯한 남자가 와인 박스를 정리하고 있다가 우리를 맞았다. 여행 왔는데 좋은 이탈리아 와인을 한 병 사고 싶다고 말했다. 그러자 어디서부터가 '그럼 이리 와서 좀 보시지요!' 라는 소리가 들려 왔다. 오페라 무대에서 들려오는 듯한 우렁찬 바리톤 남자 목소리였다. 고개를 돌려 소리 나는 쪽을 바라 보았다. 가게 한 구석에 자그만 바가 차려져 있고 그 앞에 파바로티처럼 검은 수염을 기른 육중한 체격의 이탈리아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.

우리는 흘린 듯이 그 쪽으로 다가 갔다. 바 위에는 마개를 탄 와인이 여러 병 있었고, 커다란 접시에 치즈와 살라미, 모르타렐라 같은 콜드 컷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다. "오늘의 스페셜 와인을 시음하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서 맛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 있으면 골라 보세요." 파바로티는 왕왕 울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커다란 와인 잔에 진한 붉은 빛의 와인을 따라서 내게 건넸다. 나는 와인 잔을 받아 한 모금 맛을 보았다. 깊고 부드러운 와인이었다. 내가 와인을 마시자 파바로티 아저씨는 '토스카나 살라미입니다' 하면서 접시 위의 살라미를 한 쪽 썬 내게 건넸다. 평소에 너무 짜고 기름진데다가 돼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살라미를 먹지 않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받아서 입에 넣었다.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? 하나도 짜거나 기름지지 않고 너무 맛있었다. 두 번째로 다른 와인을 권하면서 파바로티는 모르타렐라도 한 쪽 썬어주었다. 아, 이탈리아 살라미와 모르타렐라는 어찌면 이렇게 맛있지? 저녁을

실컷 먹었는데 또 먹고 있더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? 우리는 파바로티가 원하는대로 살라미와 모르타렐라를 안주 삼아 서너 가지 와인을 맛 본 다음 과일 향이 넘치는 아마로네와 처음에 맛 본 진한 브루넬로로 와인 두 병을 샀다. 파바로티는 만족한 얼굴로 가게를 나서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.

와인병을 안고 우리는 폰테 베키오를 건넜다. 석양에 물든 아르노 강은 '환상의 풍경' 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다. 잔잔한 물에 반사되는 석양과 붉은 빛으로 물든 강 주변의 건물들, 멀리 보이는 산타 트리니타 다리, 그리고 마지막 노을이 사라지며 청명하게 떠 오르는 밤 하늘. 하늘과 석양과 강물이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었고 R과 나는 그 풍경 속에서 폰테 베키오 위에 서 있었다. 우리는 머지 않은 미래에 피렌체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원했다.

폰테 베키오를 건너 천천히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으로 걸어 갔다. 광장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가득 했고, 중세의 달밤처럼 조명이 비치는 대성당은 밤하늘 속에 거대하면서도 우아한 자태를 빛내며 서 있었다. 어둠 속에 빛나는 하얀 대리석 때문인지 낮에 보이는 모습보다 더 환하고 또렷한 것 같았다. 우리는 대성당 앞에 있는 유명한 스쿠디에리(Scudieri) 과자점에 들어가 예쁜 이탈리아 과자를 한 봉지 샀다. 광장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 왔고, 사람들은 즐거운 듯 여기저기 걸어 다니고 있었다. 가끔 기념품을 파는 중동계 청년들이 깃털이 달린 야광 장난감을 하늘 높이 던져 올리기도 했다. 우리는 광장의 돌 벤치에 앉아 스쿠디에리 과자를 한 조각씩 먹으며 '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' 을 오래오래 바라 보았다. 굿 바이, 피렌체.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다.

숙소로 돌아 온 우리는 샤워를 하고 짐을 싸다. 내일은 8시에 택시가 오기로 했다. 샤워를 하고 나온 R은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다. 나는 일기를 쓰기 위해 침대 옆 램프를 켜 놓고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. 마지막 밤이라 그런지 잠도 오지 않았다. 곤하게 자던 R이 갑자기 팔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다. 놀라서 아이를 깨웠다. "왜 그러니? 꿈 꿨니?" "엄마! 뿌피가 연못에서 나와서 만년필로 내 팔을 찔렀어!" 아이를 진정시켜 다시 잠들게 한 나는 새벽 4-5시가 되도록 잠을 못 자고 말았다.

## 봄맞이 행사

3월 1일부터



- \* 남자 컷 \$ 15
- \* 여자 컷 \$ 25
- \* 펌 \$ 50
- \* 염색 \$ 50
- \* 헤나염색 \$ 55
- \* 셋팅펌 \$ 80 up
- \* 매직펌 \$ 100up

\* 예약 해주세요 \*

Tel. 714.356.7042

**DIVA** Hair Salon 1180 S. Idaho St  
디바 헤어살롱 La Habra, CA 90631

Since 1986



## 파이오니아 여행사

모든 항공권, 모든 관광일정을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립니다. 믿고 문의 하세요!

2019년 봄 성지순례

2019년 가을 성지순례

이스라엘, 요르단 9박10일 1인당 \$1799 +항공료 별도 출발 2월 25일 (금년 12월 마감)	이스라엘, 요르단 9박10일 1인당 \$1799 +항공료 별도 출발 9월 16일 (내년 5월 마감)
--	---

\* 30명 기준 가격입니다.

LA 일일관광 수시출발 (2인이상) \$99

매주토요일 LA, 샌디에고, 산타바바라 일일관광 9시 정시출발

★서울왕복★가장싼티켓

모든 항공사 공인 대리점 [www.lapioneertour.com](http://www.lapioneertour.com)

Tel: (562)403-3360

E-mail: [pioneertvl@yahoo.com](mailto:pioneertvl@yahoo.com)

17510 Pioneer Bl. Artesia, CA 90701 (Pioneer / 맥도널드 건너편)



MY BABY. MY STYLE.

gemgem



[www.egemgem.com](http://www.egemgem.com)

Follow us on Instagram & Facebook @egemgem and get 15% off coupon!

Tel: 949-529-0715  
e-mail: [info@egemgem.com](mailto:info@egemgem.com)